

# 불·보살 만나기 전 사천왕의 검문 '필수'



그림1 : 오사카 사천왕사 소장 '영산회상도'의 중심부분, 1587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부처님이 왕사성 밖 기사굴산 중에 머무시어, 큰 비구의 무리 1만 2천 명과 함께 하시고... 성자의 무리 2천 명... 보살의 무리 8만 명, 석제 환인과 그의 권속 2만 천자, 명월천자·보향천자·보광천자·사대천왕과 그 각기 권속 1만 천자, 범천왕·시기대법·광명대법과 그 각기 권속 1만 2천 천자, 여덟 용왕의 각기 권속 약간 백천, 팔부중의 각기 권속 약간 백천, 아사세왕의 권속 약간 백천 등과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각기 부처님 발밑에 예배드리고 물러나 한 편에 앉았다." (법화경:서품) (필자 편집 인용)

석가모니가 기사굴산 즉 영산(靈山 또는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려 하시자, 성문·보살·사천왕·팔부중 등 각계각층의 온갖



## 불화 속의 명장면 (31)

日 오사카 사천왕사 소장 '영산회상도'

신격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약 30만을 웃도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중이 운집하여 그 설법의 장소는 가히 장관을 이루었다. '설법'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구세경(救世經)인 <법화경>의 시작 광경이다.

이러한 회중들이 모인 영산에서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것이 '영산회상도'이다. 패쪽장(掛幅裝, 걸개그림 형식)의 작품으로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조선전기(15세기)의 '영산회상도'는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1) 만력15(1587)년의 연대가 기록된 작품 화기에는 '碩大施主 高昭寒兩主·供養大施主 高昭寒兩主·布施大施主 白秋水兩主'라고 16세기 당시 이 행화를 주문한 고세환·고소환·백주수 등의 대 시주자들의 이름이 보인다. 또 '證明 神宗中德前雙條住持 信翁比丘'라고 기입되어 있어, 쌍봉사와 밀접히 관련된 작품임을 시사한다.

일본학계에서 '가가미진자(鏡神社)에 소장된 초대형 고려 수월관음도에 이은 거족의 기념비적 조선불화'라고 평가받는 본 작

품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 '석가팔대보살상'이라고 잘못 이름 붙여져 전해지고 있었다. 현재는 오사카시립미술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데, 촬영조사 신청을 하니, 이 작품은 너무 크기 때문에 꺼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 작품 조사실의 벽면에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조사할 기회가 왔다. 사천왕사 소장 작품전이 있어 이 그림이 전시실 대형 벽면에 곧 걸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시 오픈 전에 와서 조사를 하라는 특별 허가이다. 전시실에 들어서니 실제로 엄청난 크기의 영산회상도(높이325.2x 너비 245.5cm)가 눈앞에 떡 버티고 있다. 어떻게 촬영하나 망하니 한 참 올려다보기만 하다 시신을 아래로 내리니, 한 권에 사다리가 눈에 띈다. 일본 학예관이 필자의 촬영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다. 배려가 고맙다.

두 대의 카메라와 접사렌즈·플래시 등 장비들을 목에 단단히 걸어 매고 또 허리에 차고, 심호흡 한 번 크게 하고 사다리를 올

랐다. 사다리에 몸을 의지해 위에서부터 찍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가져간 슬라이드 필름 20통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그 대형 화면 촬영이 참으로 버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작품의 크기도 크기지만 이 작품을 매우 인상 깊은 작품으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은, 화면 가장 아래에 위치한 사천왕(四天王)의 존재이다.

그 기운생동하는 표현력이 압권이다. 광목천왕의 필력은 소매자락은 소용돌이치는 바람을 품은 듯 역동하고(그림2), 몸과 다리를 휘감아 내려오는 천의는 넘쳐나는 기운으로 꿈틀거린다. 지국천왕의 푸른 얼굴은 위엄으로 가득하고 화려한 보관의 보주는 화염처럼 불타오른다.(그림4) 그가 한 금귀걸이의 필링거림이 귓가에 쟁쟁하다. 각 사천왕의 개성이 물씬 풍기는 표현력에서 오대당풍(吳帶當風: 중국 당대의 화성(畫聖) 오도자의 화풍. 일필휘지의 유려한 필력으로, 붓을 대기만해도 갑자기 바람이 일어 그림 속 옷자락이 휘날리는 듯하다하여 이렇게 일컬어짐)의 진수를 보는 듯하다.

조선후기의 수많은 영산회상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천왕상 특유의 양식, 휘날리는 옷자락과 강약 리듬감 넘치는 원한 필법의 모델이 되는 선구적 전형(典型)을, 본 작품의 사천왕상에 확인할 수 있었다. 지국천이 들고 있는 비파는 악기 판목의 나이테 문양까지 그려 넣었고, 증장천의 모자와 옷소매의 가장자리에는 털가죽 질감이 살아있는 표현으로 들렸다. 견갑은 격자무늬의 금속으로 견고히 엮여있고, 팔과 다리는 단단한 철보 보석의 보호대로 들렸다. 이러한 사천왕의 세부 표현은 지극히 사실적이고도 유려하여, 그 기운찬 생동감에 섬세한 우아함까지 더해졌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과 악귀를 물리쳐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천왕의 근본적인 의미와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거하는 수미산 중턱 '사왕천(四王天)'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교적 세계관은 크게 육계·색계·무색계로 나뉜다. 육계(欲界)는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 육계는 아래에서부터 지옥계·아



그림4 : 지국천왕의 위엄 가득한 푸른 얼굴과 화려한 보관이 생동감 넘친다.

귀계·축생계·아수라계·인간계·천계(天界)의 6도(道)의 세계로 나뉜다.

육계의 가장 위에 있는 '천계'는 다시 여섯 개의 세상, 사왕천·도리천·아마천·도솔천·화락천·타화자재천으로 나뉘는데, 이 천계의 시작인 '사왕천'이 바로 사천왕이 주거하는 곳이다. 이 사왕천은 바로 아래로는 인간계, 위로는 도리천을 두고 있다. 사천왕은 이곳에 주재하며, 아래의 인간 세상을 상제(上帝) 살핀 후, 위의 도리천(또는 33천)에 있는 제석천에게 이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사천왕은 사람들이 사는 인간계와 천인들이 사는 천계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세에서 불가(佛家)의 세계인 사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또는 사천왕문을 통과해야 한다. 천왕문 저편은 성역이고, 사천왕은 이를 지키는 지킴이인 것이다. 사천왕은 이렇게 사찰 입구, 탑신부 면석, 사리탑 외함, 전각의 외벽 및 문짝 등 모든 경계에 위치하여,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을 사수한다. 본 작품의 화면에 그 가장 아래 전면에 배치되어, 신도들은 그 이면의 부처와 보살을 만나기 전에 사천왕과 대면해야 한다. 청정한 불법(佛法)을 세계로 진입하려면 먼저 사천왕의 검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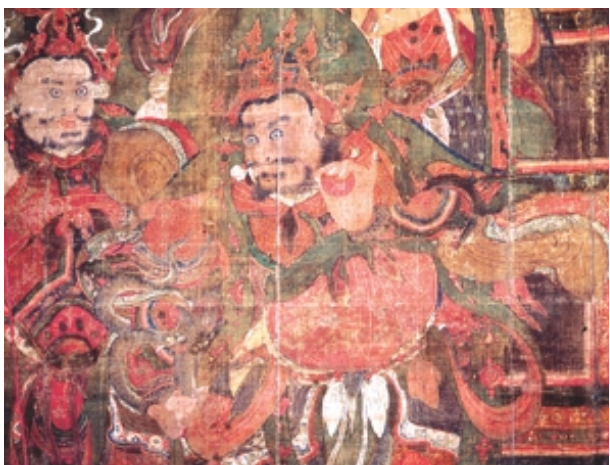


그림2 : 북방 다문천(왼쪽)과 서방 광목천(오른쪽). 광목천은 용의 입에서 여의주를 뱉어 용을 진압하고 있다.



그림3 : 남방 증장천(왼쪽)과 동방 지국천(오른쪽). 지국천은 푸른 얼굴에 비파를 쥔 채 있다.

고려 수월관음도에 이은 거족의 기념비적 조선불화 생동감 있게 표현한 사천왕은 오대당풍 진수 보는 듯 사찰 입구 등 모든 경계에 위치 청정한 불법세계 수호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서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범문집의 백미"  
서용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